CONDERI

CONDERI DAILY INSIGHT | 일일 인사이트 리포트 | 대외 공개판

이자의 시대: 코어위브가 되살린 AI, 소프트뱅크가 제출한 청구서 — 그리고 잃어버린 첫 계단

The Age of Interest: AI Re-Rated, the Bill Itemised, and the First Rung That Disappeared

본 리포트의 독자 및 활용 가이드

이 리포트는 2026년 11월 10일부터 12일 아침까지의 글로벌 시장·거시·산업·노동·교육 현장을 창업가, 경영진, 엔지니어, 투자자, 인사 담당자가 함께 읽도록 구조화한 일일 산업 인사이트입니다. 모든 수치는 공개된 공식 출처(정부 통계, 거래소·시장 데이터, 기업 공시, 주요 언론 보도)로 검증했고, 확정 수치와 추정을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이번 호의 관찰은 하나입니다 — AI의 값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이자'로 매겨집니다.

문서 정보 / Document Information

문서등록번호 Document No.	CONDERI-IR-2026-11-12
발행일자 Published	2026. 11. 12. (목) Thursday
권호 Volume	VOL. 2026-11-12
분석기간 Coverage	2026. 11. 10 ~ 11. 12 조간 (직전 3일)
배포구분 Distribution	Public | 일반공개
발행기관 Publisher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조사·집필 Research	AI산업전략연구실

+7.68%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1-11
10,766.53 · 7월 이후 최대 상승

5,375.36
코스피 11-11 +2.60%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수 6,587억

49.7%
11월 1~10일 수출 중 반도체 비중
166억 달러 · 전년 동기 +331.2%

−19.6만
10월 청년 취업자 (15~29세)
48개월 연속 감소 · 고용률 42.9%

한 문장으로: 시장은 AI를 다시 샀고, 회계는 AI에게 이자를 물었다

반도체는 실적으로 반등했지만 자본비용은 5%에 닿아 있었고, 노동시장의 첫 계단은 48개월째 비어 있다

+1.60%
나스닥 11-11 종가 기준 상승률(약 25,467). 코어위브 실적이 AI 과잉 투자 우려를 눌렀다

5.000%
미 10년물 금리 장중 수준. 11-11은 재향군인의 날로 채권시장 휴장 — 금리 시험은 12일로 이연

$132.5B
코어위브 수주잔고(9월 말). 6월 말보다 285억 달러 증가, 4분기 설비 투자 전망 370억~390억 달러

42.9%
10월 청년 고용률. 1년 전보다 1.7%p 하락, 30개월 연속 하락 — 2020년 10월 이후 최저

1. 시장: 반등의 재료가 '금리'에서 '수주'로 바뀌었다

11-11 뉴욕은 다우 +0.49%, S&P500 +1.31%, 나스닥 +1.60%로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하루에 7.68% 올라 10,766.53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을 끌어낸 것은 금리도 정책도 아닌 **코어위브의 3분기 숫자**였습니다. 매출 36억6,100만 달러(전년 대비 +168%), 연간 가이던스 130억~133억 달러 상향, 수주잔고 1,325억 달러. 'AI 인프라를 지어도 돈이 안 된다'는 의심에 처음으로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계약서로 답한 셈입니다. 다만 같은 날 채권시장은 휴장이었고, 10년물은 전일 5.00%를 찍은 상태였습니다. 주식이 안도한 하루와 금리가 심판하는 하루는 아직 분리되어 있습니다.

2. 한국: 수출이 만든 '1조 달러'의 그림자

코스피는 이틀 연속 올라 5,375.36(+2.60%), 코스닥은 705.10(+5.62%)으로 700선을 되찾았습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수(6,587억 원)로 돌아섰습니다. 11월 1~10일 수출은 335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1.9% 늘었고, 그중 반도체가 166억 달러(+331.2%)로 49.7%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누적 수출은 9,637억 달러로 사상 첫 1조 달러까지 363억 달러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 성장이 **한 품목에 4분의 3을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때 한국 경제가 흔들릴 진폭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3. 기업: 같은 AI, 갈린 두 장부

TSMC는 10월 매출 5,869억 대만달러(전년 대비 +59.7%)로 역대 최고를 세우고 409억 달러(약 54.6조 원) 신규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반면 소프트뱅크는 2026회계연도 상반기 7,680억 엔 순손실을 냈고, 미국 데이터센터 발전설비 조달 계획 변경으로 5,972억 엔을 한 번에 상각했습니다. 같은 AI 붐에서 **공급자는 이익을, 자금을 댄 쪽은 감가상각을** 가져갔습니다.

4. 거시: 12월 인상은 '기정사실', 폭이 변수

10월 CPI는 전월비 0.4%, 근원 0.3%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시장은 12월 25bp 인상을 100%, 50bp 인상을 11.8%로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한국은 26일 금통위를 앞두고 근원물가 2.8%, 10월 은행 가계대출 5조 원 증가(9월 5,000억 원)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올해 안에 재개되기 어렵습니다.

5. 사람·교육: 계약이 교실을 먼저 바꾼다

청년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고, 60세 이상은 19만 6,000명 늘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정책보다 계약이 빠릅니다. 앤트로픽이 미국 교원노조와 학생 데이터 학습 금지·180일 내 삭제·에이전트 기본 꺼짐을 담은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맺었고, 서울 1,300여 개 학교에는 AI 챗봇이, 교사 209명 설문에서는 문서 업무 1시간 이상 절감(54.5%)이 확인됐습니다.

영역	오늘의 숫자	그 숫자가 말하는 것
글로벌 시장	SOX 10,766.53 (+7.68%) · 나스닥 25,467 (+1.60%)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상승 재료는 금리가 아니라 코어위브의 수주였고, 금리 시험은 휴장으로 12일로 이연됐다.
한국 시장	코스피 5,375.36 (+2.60%) · 외국인 +6,587억	이이틀 연속 외국인 순매수. 10월 이후 이탈한 약 30조 원의 되돌림인지 추세 전환인지는 아직 판별되지 않았다.
수출·산업	11월 1~10일 335억 달러 (+111.9%) · 반도체 49.7%	1조 달러 수출까지 363억 달러. 성장의 4분의 3이 반도체 한 품목에서 나왔다.
자금·금리	근원 CPI 0.3% (3개월 연속) · 12월 인상 확률 100%	금리 인하 사이클은 올해 안에 재개되기 어렵다. 프로젝트 단위 조달 비용이 생사를 가른다.

한 문장 결론 AI의 다음 병목은 칩도 전력도 아니라 **'검증된 계약과 값싼 자본'**이다 — 수주잔고와 담보 구조를 가진 기업만이 5% 금리에서도 설비를 계속 지을 수 있고,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쪽은 상각으로 청구서를 받는다.

Executive Summary: AI Re-Rated, the Bill Itemised

Semiconductors rallied on signed contracts, not on hope — while the cost of capital stayed at five percent

Markets: the catalyst moved from rates to backlog

On 11 November the Dow rose 0.49%, the S&P 500 1.31% and the Nasdaq 1.60%, while the Philadelphia Semiconductor Index jumped 7.68% to 10,766.53. The trigger was CoreWeave's third quarter: revenue of $3.661 billion, up 168% year on year, full-year guidance raised to $13.0–13.3 billion, and a backlog of $132.5 billion. The bond market was closed for Veterans Day, so the ten-year yield remained at the 5.00% it touched a day earlier. Equities exhaled; the interest-rate test was simply postponed by a holiday.

Korea: a trillion-dollar export year built on one product

The KOSPI closed at 5,375.36 (+2.60%) and the KOSDAQ at 705.10 (+5.62%), with foreign investors net buyers for a second session. Exports in the first ten days of November reached $33.5 billion, up 111.9% year on year, of which semiconductors were $16.6 billion — 49.7% of the total, up from 24.4% a year earlier. Cumulative exports of $963.7 billion leave only $36.3 billion to the country's first trillion-dollar year. The concentration is the risk: roughly three quarters of this year's export growth now rides on memory and logic.

Balance sheets: the supplier earns, the financier depreciates

TSMC reported October revenue of NT$586.9 billion, up 59.7% year on year and a monthly record, and approved $40.9 billion of new investment, including up to $500 million each into OpenAI and Anthropic. SoftBank booked a ¥768 billion net loss for the first half and wrote off ¥597.2 billion in a single quarter when it changed the power-procurement plan for its US data centres. In the same boom, one side of the table collects margin and the other collects depreciation.

Labour and learning: the first rung is still missing

October payrolls added 139,000 jobs, yet youth employment (15–29) fell 196,000, the 48th consecutive decline, and the youth employment rate dropped to 42.9%. Workers aged 60 and over added 196,000. In classrooms the binding documents are arriving faster than the policy: Anthropic signed a legally binding agreement with US teachers' unions barring student-data training, requiring deletion within 180 days, and disabling agent actions by default; 1,300 Seoul schools now run an AI chatbot for 700,000 students; a survey of 209 Korean teachers found 54.5% saved more than an hour of administrative work a week.

11.12 미 채권시장 재개
휴장으로 미뤄진 5% 금리 시험이 다시 시작된다. 30년물 입찰 수요가 하이퍼스케일러 조달 비용의 선행지표다.

11.18 젠슨 황 의회 브리핑
하원 3개 위원회 비공개 합동 브리핑. 국방수권법안 내 수출 통제 조항의 향방이 걸려 있다.

11.19 앤트로픽 상장
종목코드 ANT. 공모가 70~78달러, 완전희석 기준 기업가치 약 1조4,000억 달러에서 출발한다.

11.26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00% 유지 여부. 근원물가 2.8%와 가계대출 5조 원 증가가 동시에 걸려 있다.

10,766.53
SOX 11-11 종가 (+7.68%)

5,375.36
코스피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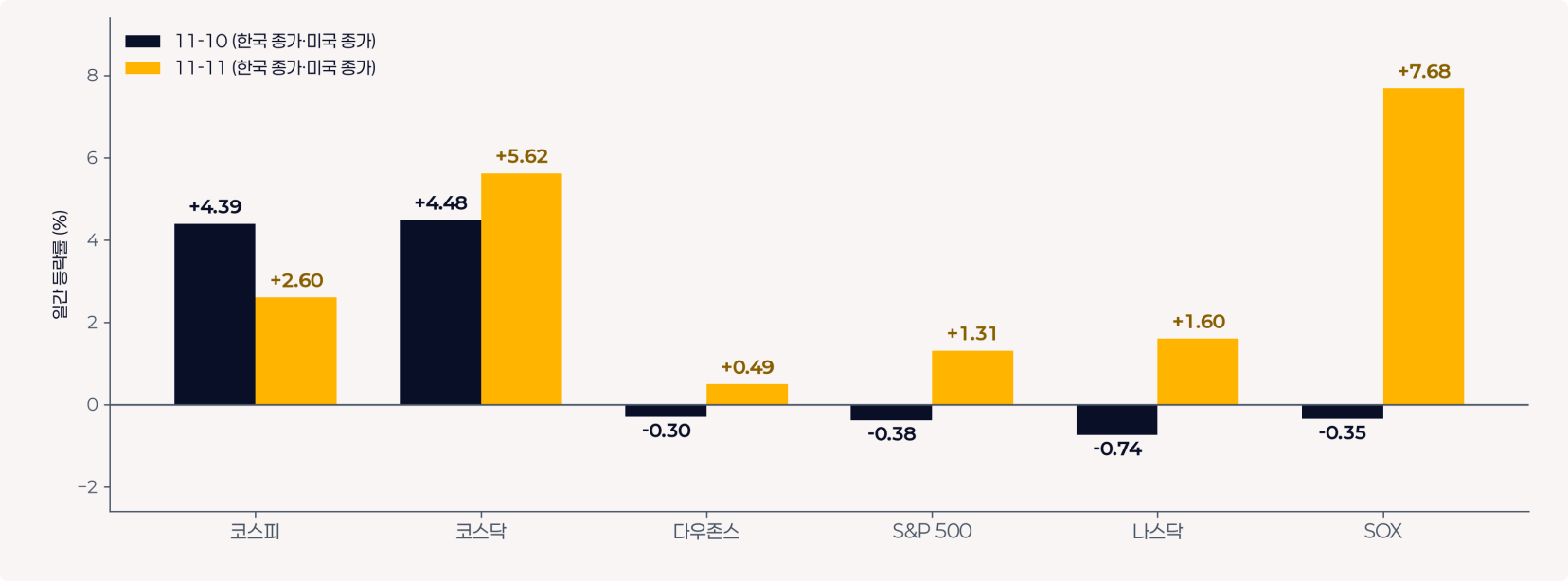
49.7%
11월 1~10일 수출 중 반도체

42.9%
청년 고용률 (30개월 연속 하락)

$1.404T
앤트로픽 완전희석 기업가치

I. 시장: 반등의 주인이 바뀐 이틀

11-10은 서울이 먼저, 11-11은 뉴욕이 뒤따랐다 — 상승의 재료가 수급에서 수주로 이동했다



[그림 1] 코스피·코스닥은 11-10 급등 후 11-11 추가 상승, 미국은 11-10 하락 후 11-11 반등. SOX는 하루 7.68% 상승. 출처: 한국거래소·뉴스핌·아시아경제

수급: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수

외국인 +6,587억, 기관 −4,816억, 개인 −7,156억. 코스닥은 기관이 3,180억 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했다.

질문: 30조 원의 되돌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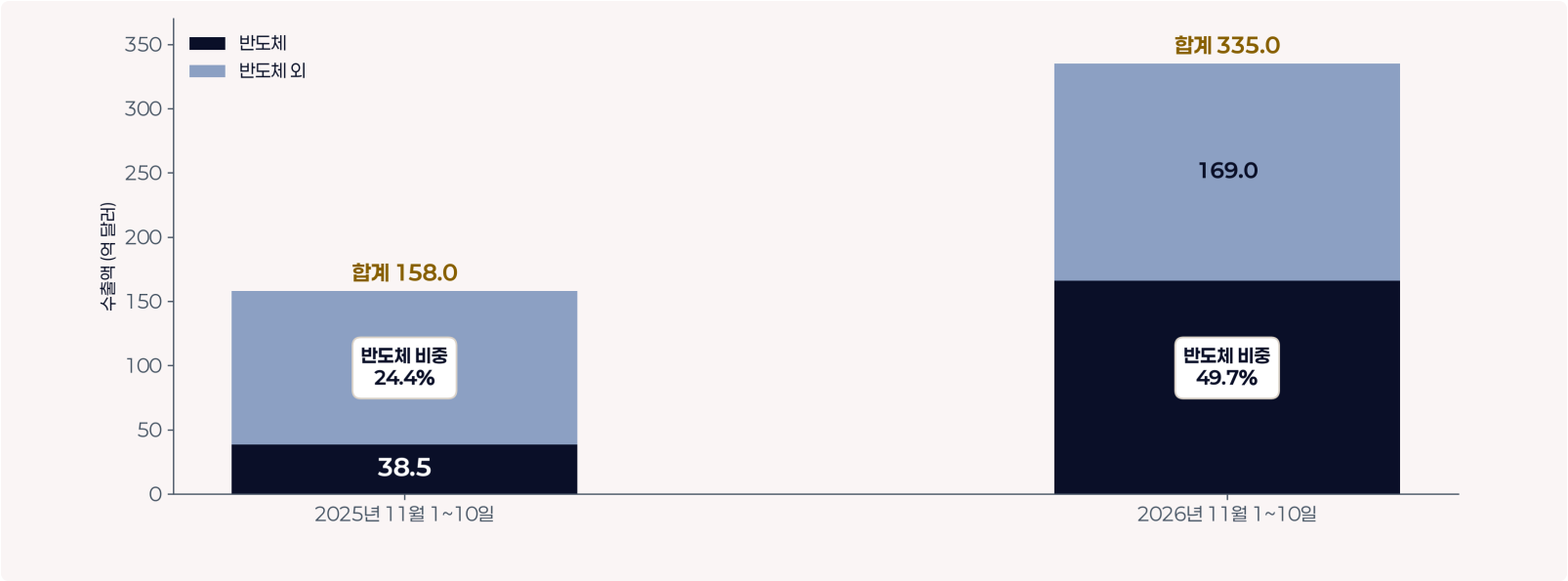
10월 이후 코스피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약 3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틀의 순매수는 추세 전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관전점: 12일 채권시장 재개

10년물이 5.00%를 다시 넘으면 주식 반등과 금리 횡보의 조합이 깨진다. 반도체 강세가 금리 상승을 이겨낼 수 있을까.

II. 산업: 1조 달러를 향한 열흘 —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

11월 1~10일 수출 335억 달러(+111.9%), 반도체 166억 달러(+331.2%) · 누적 9,637억 달러로 1조 달러까지 363억 달러



[그림 2] 반도체 비중은 24.4%에서 49.7%로 25.3%p 확대. 출처: 관세청·산업통상부(11-11)

구분	2026년 10월	전년 동월	해석
총수출	1,152.8억 달러	+93.7%	월간 역대 2위
반도체	564.4억 달러	+259.4%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컴퓨터	58.5억 달러	+496.6%	기업용 SSD 56.4억 달러

해석: 한 품목이 만든 4분의 3

1년 사이 늘어난 수출 3,687억 달러 중 74%가 반도체에서 나왔다. 반면 11월 제조업 업황 전망(PSI)은 102로 전월 113에서 11포인트 하락했고, 반도체 159와 휴대폰 53의 격차가 벌어졌다.

III. 거시: 12월 인상은 기정사실, 남은 변수는 '폭'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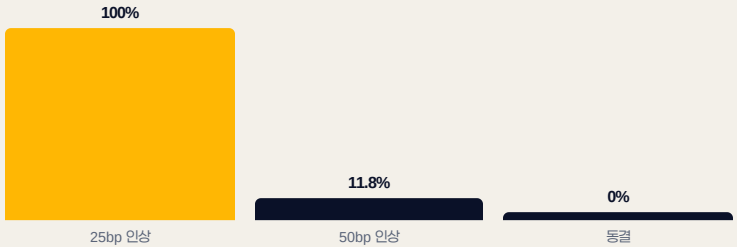
10월 CPI 0.4%·근원 0.3%로 예상 상회 · 25bp 확률 100%, 50bp 11.8% · 한은은 26일 결정

3.1 금리 경로 Policy path and market pricing

미국: 세 달 연속 0.3%가 만든 결론

근원 CPI는 3개월 연속 0.3%를 기록했습니다. 주거비가 월간 상승의 30% 이상, 식품 +0.5%, 에너지 +0.7%, 중고차 −1.2%였습니다. 윌러 이사는 "근원이 0.3% 수준이면 12월 50bp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로건 댈러스 총재는 "최소 두 차례 추가 25bp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년물은 18.9bp 오른 4.736%로 2025년 4월 이후 최대 일일 상승을 기록했고, 10년물은 4.99%로 마감하며 장중 5.00%를 넘었습니다. 2년·10년 스프레드는 25bp로 축소됐습니다.

시장이 반영한 확률 (CME FedWatch)



11-09 84% → 11-10 100%. 50bp는 전일 0%에서 11.8%로. 출처: Reuters·CME

한국: 인하 사이클이 닫힌 이유

10월 소비자물가는 2.8%로 9월보다 0.1%p 낮아졌지만 목표 2%를 웃돌고, 근원도 2.8%입니다. 10월 은행 가계대출은 5조 원 늘어 9월(5,000억 원)의 열 배로 확대됐고 잔액은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0% 성장했지만 청년 고용률은 42.9%로 1.7%p 하락했습니다. **성장은 반도체가 만들고, 고통은 가계와 청년이 나눠 갖는** 구도에서 한은은 26일 기준금리 3.0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과 유가: 두 개의 상방

원·달러는 1,333.6원(전일 대비 3.9원 하락)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달러지수는 102.87로 0.62%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1.8% 오른 배럴당 93.13달러로, 이란 전쟁 이후 72~120달러 범위의 중간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난다"고 말한 날에도 유가가 오른 것은 공급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유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오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조달 비용과 수입 원가가 함께 밀려 올라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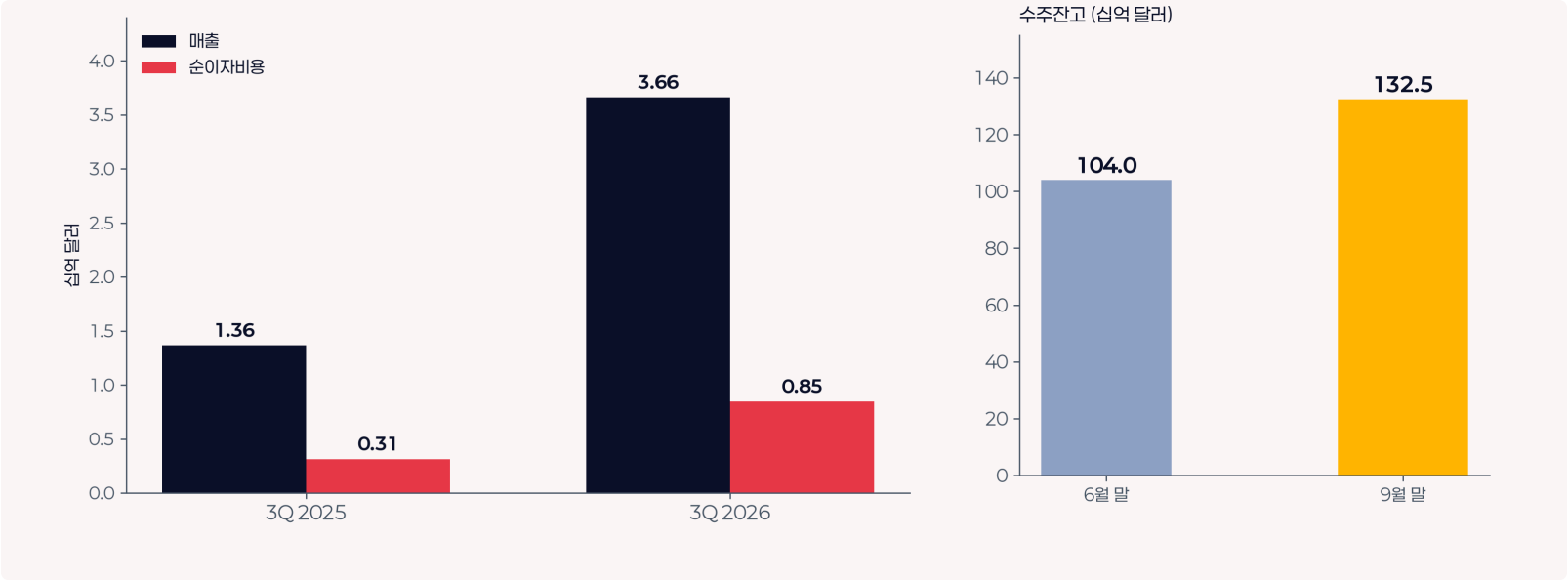
기업 자금조달: 스프레드가 먼저 말한다

10년물 하이퍼스케일러 회사채 스프레드는 연초 이후 약 50bp 확대됐고, AI와 무관한 우량 산업재는 20bp에 그쳤습니다. 코어위브가 연초 9.75%로 발행한 채권은 15% 수익률에 거래됩니다. 은행들은 앤트로픽·구글의 보증이 붙은 딜조차 추가 익스포저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이제 '거시 지표'가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의 생사**를 가르는 변수입니다.

0.4%	0.3%	4.736%	2.8%	5조 원
10월 CPI 전월비	근원 CPI (3개월 연속)	미 2년물 (18.9bp↑)	한국 소비자물가	10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

IV. AI 인프라의 회계: 매출 168%, 이자 170%

코어위브는 수요를 증명했고, 동시에 자본이 비싸다는 것도 증명했다



[그림 3] 3분기 매출 36억6,100만 달러(+168%), 순이자비용 8억4,600만 달러(전년의 약 2.7배), 순손실 7억900만 달러, 수주잔고 1,325억 달러. 출처: 코어위브 공시(11-10)

시장이 본 것: 계약서

수주잔고 1,325억 달러(6월 말 대비 +285억), 연간 가이던스 130억~133억 달러 상향, 연말 연환산 런레이트 200억~210억 달러, 향후 3개월 선수금·예치금 약 90억 달러. 주가는 장중 26%까지 올랐다.

시장이 지나간 것: 이자와 담보

순이자비용은 매출의 23%, 설비투자 전망은 370억~390억 달러로 매출의 3배에 가깝다. 회사는 엔비디아 GPU를 담보로 금리 7~7.5% 조달을 기대한다 — 무담보 15%와의 차이가 담보의 값이다.

한 줄 판정

AI 인프라는 수요 증명 국면을 지나 자금조달 구조 증명 국면에 들어섰다. 같은 실적도 무담보로 빌리는 회사와 담보를 잡히는 회사의 값이 갈린다. 소프트뱅크의 5,972억 엔 상각도 같은 문법이다.

V. 기업: 같은 붐, 갈린 두 장부

TSMC는 사상 최대 월매출과 54.6조 원 투자, 소프트뱅크는 6.5조 원 상반기 순손실

항목	TSMC (공급자)	소프트뱅크 (자금 제공자)	해석
10월·2분기 실적	매출 5,869억 대만달러(+59.7%), 1~10월 누적 4조4,856억 대만달러(+43.3%)	7~9월 순손실 1조1,153억 엔, 상반기 7,680억 엔 적자	매출 vs 상각
투자·손실	409억 달러(약 54.6조 원) 신규 투자 승인, 5nm 이하가 매출의 69%	발전설비 조달 계획 변경으로 5,972억 엔(약 5.2조 원) 일시 상각	능력 vs 계획
생태계 투자	오픈AI·앤트로픽에 각 최대 5억 달러, 반도체 생태계 펀드 5억 달러	오픈AI 지분 13% 확보에 646억 달러 투입	지분 vs 부채
주가	연초 대비 +47.4%	연초 대비 −12%, 최근 한 달 −27%	현금흐름의 값

삼성전자의 선택: 84.4조 원과 110조 원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투자 84조4,000억 원 중 76조8,000억 원을 반도체에 배정하고, 3분기 현금배당 30조 원을 포함해 연간 주주환원을 최대 11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투자와 환원을 동시에 하는 것은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에서 현금을 '능력'과 '신뢰'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엑시노스2700을 갤럭시 S27 일반·플러스에 탑재하고 2나노 수주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입니다.

엔비디아: 5.4조 달러 기업의 단일점 리스크

엔비디아는 이틀간 약 10%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장중 4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11-11에 2%대 반등했습니다. 이사회는 전 연방검사 준 김 변호사를 선임해 젠슨 황 CEO 관련 독립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의사결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구조는 규모와 무관하게 할인율의 대상이 됩니다. **지배구조는 이제 재무제표 바깥의 항목이 아니라 안의 항목**입니다.

한국 기업에 남는 것

TSMC의 증설은 HBM4 베이스다이 수요로, 소프트뱅크의 상각은 전력 인프라 계약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은 국내 장비·부품사에 기회이지만, 세트·완제품 기업에는 원가 상방입니다. **밸류체인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가 올해 실적의 전부**가 됩니다.

공급자: 이익이 먼저 도착하는 자리

TSMC는 2나노 양산과 5nm 이하 비중 69%에 힘입어 이익률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가격 상승분을 분기 안에 반영합니다. 설비를 먼저 지은 쪽이 사이클 초입의 가격을 가져갑니다.

운영자: 계약과 이자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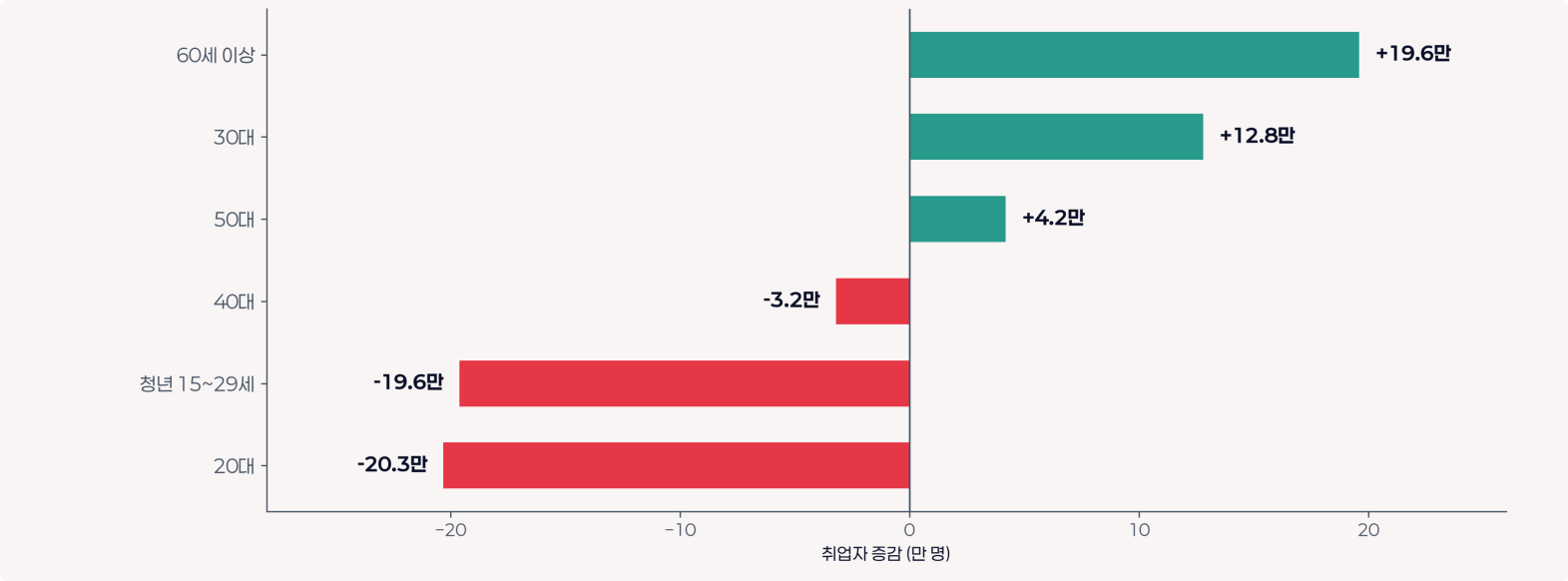
코어위브·네비우스 같은 네오클라우드는 수주잔고가 늘어도 이자비용이 먼저 나갑니다. 계약 기간이 길고 선수금이 붙은 고객이 많을수록 같은 매출도 더 높은 값에 거래됩니다. 계약 구조가 곧 신용등급입니다.

자금 제공자: 상각의 자리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지분 13%를 646억 달러에 확보했지만, 데이터센터 발전설비 계획이 바뀌자 5,972억 엔을 한 분기에 상각했습니다. 미래 이익을 먼저 사는 쪽이 가장 늦게 현금을 만납니다.

VI. 사람: 총량은 늘고, 첫 계단은 사라졌다

10월 취업자 +13.9만 · 청년 −19.6만(48개월 연속) · 60세 이상 +19.6만 — 같은 숫자가 다른 세대를 가리킨다



[그림 4] 2026년 10월 연령계층별 취업자 증감. 출처: 국가데이터처 10월 고용동향(11-11)

숫자: 세 개의 기록

15~64세 고용률 70.4%는 10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 2.0%는 1999년 이후 최저, 청년 고용률 42.9%는 2020년 10월 이후 최저. 청년 인구가 14만1,000명 줄 때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었다.

원인: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데이터처는 경력직 선호·수시 채용 확산을 직접 원인으로 들었다. 한국은행은 4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 28만5,000개 중 94%가 AI 노출 업종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현장: 경쟁률 6대 1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 경쟁률 평균 6대 1. 청년 확장실업률은 15.1%로 1년 전보다 0.4%p 올랐다 — 실업률이 내려간 자리에서 체감 실업은 올라갔다.

Ⅶ. 교육: 교실은 정책보다 계약으로 먼저 바뀐다

미국은 노조와 구속력 있는 데이터 협약, 한국은 교육청 단위 도입 — 표준이 제품 사양이 되는 중

계약: 앤트로픽 × 미국 교원노조

10일 AFT·UFT는 앤트로픽이 'AI 안전·개인정보 보호 학교 표준'에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교사 데이터의 AI 학습·미세조정·벤치마크 사용 금지(소급 적용), 삭제 요청 시 180일 내 영구 삭제, 침해 시 72시간 내 통지, 학생 계정의 에이전트 기능 기본 꺼짐, 동반자형 기능 금지, EU·북미 내 저장이 핵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11-01 발효)에 이어 두 번째 서명 기업입니다.

표준: 1EdTech의 TPLC 6원칙

커티스 반즈 1EdTech CEO는 11일 '러닝 임팩트 코리아 2026'에서 "학습정보를 얼마나 줄지, 누가 결정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그 권한은 공급업체가 아니라 교육기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적으면 AI가 추측하고, 너무 많으면 통제를 잃습니다. 한국에는 교육과정· 직무역량 데이터를 국제 표준과 연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출의 다음 품목이 교육 데이터 표준**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책: 경기도의 3단계 문

경기도교육청은 초등은 범용 생성형 AI 단독 이용 제한(교사 감독하 교육용 AI만), 중등은 교사 지정 범위, 고교는 출처·이용 내역 공개·검증을 전제로 허용하는 안을 공청회에서 제시했습니다. 2027년 1월 5일 선포식에서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 국가AI교육연구센터 설립·운영 예산 30억 원은 전액 삭감된 상태여서, **정책의 시간축과 교실의 시간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① 행정: 테크빌교육 마이클 AI

교사 209명 설문에서 54.5%가 주당 교무·행정 시간이 1시간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AI 한글 에디터 활용률 53.6%, 만족도 8.02/10. 생활기록부·가정통신문 같은 '한글 양식' 업무가 실제 절감 지점이었습니다.

현장 ② 안내: 서울 1,300개교 AI 챗봇

나라원시스템이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1,300여 개 학교 홈페이지에 자연어 기반 'AI프로'를 열었습니다. 학생·교직원·학부모 약 70만 명이 24시간 이용하며, 9개 분야 아이콘과 관리자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현장 ③ 진단: 비주얼캠프 시선추적

스마트기기 카메라만으로 읽기 정체 구간을 찾는 문해력 진단이 1,500여 개 교육기관에 공급됐고 누적 평가 데이터는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능 앱 '천지문'으로 B2C까지 확장했습니다.

현장 ④ 데이터: 충남 마주온·아이글

마주온은 학습 충실도·집중도 등 5개 지표를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손글씨 서·논술형 환류 시스템 아이글은 누적 152개교에서 AI 1차 피드백과 교사 판단을 결합했습니다.

조항	앤트로픽 × AFT·UFT (구속력)	1EdTech TPLC (표준 논의)	경기도교육청 (정책안)
데이터 학습	학습·미세조정·벤치마크 사용 금지, 소급 적용	과업에 필요한 데이터만 확인	학생 단독 이용 제한 (초등)
삭제·통지	180일 내 영구 삭제, 침해 72시간 내 통지	정보 제공 범위·조건을 기관이 관리	출처·이용 내역 공개 (고교)
에이전트	학생 계정 기본 꺼짐, 동반자형 기능 금지	시스템 간 연결의 보안 확산 위험 관리	교사 감독·지정 범위 안에서만 허용
보관·인증	EU·북미 내 저장, SOC 2 Type II·ISO 42001 유지	기관이 제공 범위와 사용 조건을 관리	2027년 1월 5일 선포식에서 최종안 발표
실효성	위반 시 시정 절차, 반복 시 자격 취소·공개	표준 구현·검증 참여를 한국 기관에 요청	검증된 교육용 AI 선정 기준은 미공개

Ⅷ. 전략 시사점: 이번 주에 바뀐 다섯 개의 기준

창업가·경영진이 오늘 바로 조정해야 할 판단 지점

금융·재무

[POINT] 조달 계획을 '금리 시나리오'가 아니라 **'스프레드 시나리오'**로 다시 짜야 합니다. 무담보 15%와 GPU 담보 7~7.5%의 차이는 신용등급이 아니라 담보 자산의 존재 여부에서 나왔습니다. 자산이 있는 기업은 자산을 담보로, 없는 기업은 계약을 담보로 만들어야 합니다(수주잔고, 선수금, 장기 오프테이크). 12월 FOMC 전에 50bp 시나리오의 이자비용을 숫자로 계산해 두십시오.

전략·사업모델

[POINT]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더 이상 차별점이 아닙니다. 이번 주 시장이 값을 준 것은 **반복되는 계약과 검증 가능한 지표**입니다. 코어위브의 168% 성장도, TSMC의 60% 성장도 고객이 여러 해에 걸쳐 약정한 물량에서 나왔습니다. 파일럿을 계약으로, 계약을 다년으로 바꾸는 영업 구조가 투자 유치보다 먼저입니다.

인사·조직

[POINT] 신입 채용을 줄이는 결정은 단기 원가를 낮추고 3년 뒤 조직의 승계 능력을 없앱니다.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이 만든 48개월의 공백은 결국 '중간 관리자 없는 조직'으로 돌아옵니다. 채용을 줄이더라도 **검증 가능한 실무 과제**로 첫 계단을 설계하는 팀이 3년 뒤 앞섭니다.

교육·에듀테크

[POINT] 학교 시장의 구매 기준이 '기능'에서 **'데이터 계약'**으로 이동했습니다. 학습데이터 학습 금지, 180일 삭제, 72시간 통지, 에이전트 기본 꺼짐, 저장 지역 — 이 다섯 줄을 제품 사양서와 계약서에 먼저 넣는 기업이 입찰에서 이깁니다. 반대로 이를 '법무 이슈'로 미루는 제품은 공교육 진입 자체가 막힙니다.

거버넌스·리스크

[POINT] 엔비디아 사례는 '한 사람의 판단'이 5조 달러 기업의 할인율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의사결정 로그, 승인 체계, 설명 가능성, 이해충돌 공개 — 스타트업에도 같은 항목이 적용됩니다. 특히 **수출통제·데이터·개인정보**가 걸린 사업은 거버넌스 문서가 곧 영업 문서입니다.

실행 함정 3가지

[CHECK] 반도체 수출 호조를 내수 회복으로 읽는 것 — 업종 간 격차(PSI 159 vs 53)가 더 큰 사실입니다.
[CHECK] 금리 인하를 전제로 2027년 예산을 짜는 것 — 12월 인상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CHECK] AI 도입을 '도구 지급'으로 끝내는 것 — 매출 168%와 이자 170%가 같이 오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5.00%	+111.9%	$132.5B	-5,972억 엔	42.9%
미 10년물 장중 금리	11월 1~10일 수출 증가율	코어위브 수주잔고	소프트뱅크 일시 상각	청년 고용률

11.12 미 채권시장 재개
10년물 5.00% 재돌파 여부. 조달 비용의 기준선이 다시 계산된다.

11.19 앤트로픽 상장
AI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첫 공식 가격. 국내 반도체 수급에도 직접 영향.

11.26 한은 금통위
3.00% 유지 여부. 가계대출과 원화 약세가 인상 명분을 만들고 있다.

12.08~09 FOMC
25bp vs 50bp. 2027년 예산과 밸류에이션의 할인율이 여기서 정해진다.

부록: 출처 및 유의사항

Sources and Notes

주요 출처 (발행일 기준 최근 3일 공개 자료)

· 미 노동통계국 10월 CPI, Reuters·뉴스핌·머니투데이 뉴욕 마감 보도 (11-10~11)
· 뉴스핌 글로벌마켓리포트(11-11·11-12), 아시아경제·뉴시스·연합뉴스 미국 증시 마감 속보 (11-12)
· 한국거래소·연합뉴스·파이낸셜포스트·뉴스핌 국내 증시 마감 (11-11)
· 관세청 11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 산업통상부 10월 수출입 동향, 아시아경제 수출 분석 (11-11)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0월 고용동향, 한국은행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 (10-26)
· 한국은행 10월 금융시장 동향·은행 가계대출, 금융위원회 10월 가계대출 동향 (11-11~12)
· 코어위브 3분기 실적 공시(SEC), 대한경제·이데일리·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 분석 (11-10~11)
· TSMC 10월 매출 및 이사회 투자 승인, 머니투데이·이투데이·배런스 보도 (11-10~12)
· 소프트뱅크 2026회계연도 상반기 실적, AP·블룸버그 보도 (11-11)
· 더인포메이션·로이터·FT·악시오스·NYT 엔비디아 조사 및 수출통제 보도 (11-10~11)
· AFT·UFT 보도자료 및 앤트로픽 학교 표준 협약서(29쪽), 디지털데일리 1EdTech 서밋 보도 (11-10~11)
· 머니투데이(나라원시스템·테크빌교육), 동행일보(비주얼캠프), 세계일보(충남교육청) (11-11)
· 경기도교육청 AX 공청회 자료, 전자신문 국가AI교육연구센터 예산 보도 (11-09~10)
· 블룸버그NEF 자체발전 계획 자료, 가디언 보도 (11-11)

유의사항

본 리포트는 공개자료 기반 산업 분석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지수 종가와 등락률은 11-11(현지) 마감 보도 기준이며, 일부 지수 레벨은 전일 종가와 보도된 등락률로 계산한 값입니다. 11월 1~10일 수출의 전년 동기 값은 보도된 반도체 비중과 증감률로 역산한 추정입니다. 코어위브의 연환산 매출 런레이트와 설비투자 전망은 회사 가이던스이며 확정 실적이 아닙니다. 소프트뱅크 손실의 원인 설명은 회사 발표와 AP 보도를 종합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전망은 시장 컨센서스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시 발행: 트랙 2 학술 인사이트
에이전트의 책임성과 조직 효과 — 국내외 실증 연구 7편 (CONDERI-AR-2026-11-12)

동시 발행: 포커스 칼럼 6호
칩은 국경을 넘었고, 책임은 아직 국경 안에 있다

동시 발행: 글로벌 옴니버스 4호
AI 인프라의 회계 — 6대 매체 교차 분석과 차트 4종 (CONDERI-GO-2026-11-12)